

# 알도 로시의 '자전적 개념'과 스키마를 바탕으로 한 건축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ldo Rossi's Architectural Design Characteristics based on his 'Autobiographical Concept' and Schema

Author 우창옥 Woo, Chang-Ok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석사과정  
김종진 Kim, Jong-Jin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조교수

Abstract Memory and schema are very similar in terms of human accumulated mental and physical experiences. However, while memory has more personal aspect, schema discussed in this paper has more collective aspect. Schema has been developed through different generations and times, and has become a specific psychological or visual element(s)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such as art, design and architecture. This study focuses on Aldo Rossi's architectural design characteristics based on his 'Autobiographical Concept' as well as personal schema. 'Autobiographical Concept' is the crucial structure supporting Aldo Rossi's distinctive formalization and spatialization. 4 case project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by the 5 elements included in 'Autobiographical Concept'. It was not easy to relate each element to a specific design aspect because the 5 elements are somehow theoretically and conceptually inter-connected each other. Even though it is very difficult to directly relate a conceptual element with a real spatial element, it is found that the 5 elements have some differences in the spatialization process. Thus,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attempted to show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Aldo Rossi's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based on his 'Autobiographical Concept'.

Keywords 알도 로시, 스키마, 기억, 공간, 자전적 개념  
Aldo Rossi, Schema, Memory, Space, Autobiographical Concept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도시의 시선을 이제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성, 기억, 휴식, 자연 등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으로 맞추어가고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다음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도시는 꾸준히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도시의 발전 형태를 보면 기하학적인 형태로써 획일화된 직선 형태로 발전되어오다가 서서히 작은 부분부터 유기적인 형태나 사람들의 이동 경로에 따른 형태로 계획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도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들의 기억과 여러 경험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발전하였는지 알아보고자하며, 또한 도시의 건축 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특성이 나타나는지 알아 볼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억과 경험에 의해 나타나는 스키마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도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객관적인 평가로 이론을 구축한 알도 로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또한 역사와 기억, 경험에 대해 고찰하고 발전시켰던 신헌리주의 건축의 특성에 바탕을 둔 알도 로시의 건축디자인에 따른 스키마에 의한 공간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분석하여 알도 로시의 5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다른 일반적 공간에 적용가능한지 방향을 제시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도시 안에서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 등에 의해 건축 공간에 나타나는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추상적인 부분을 선행 연구에서 연구되어진 스키마에 대한 여러 연구방향에서 건축적 성향의 특성과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이 건축 디자인과 저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알도 로시의 건축 공간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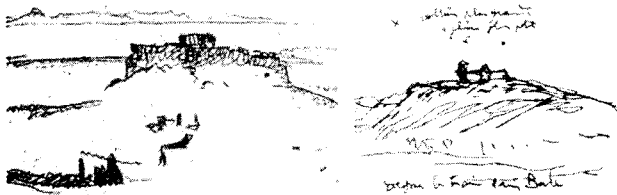
연구의 범위는 기억과 경험, 역사 등 스키마의 특성에 대한 알도 로시의 자전적 개념을 중심으로 작품에 나타난 특성과 공간 분석을 할 것이며, 도시 안에 계획된 그의 작품 중 특정한 공간이 아닌 일반적인 건축 공간인 학교, 청사, 주택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선정하였다.

## 2. 스키마(Schema)

### 2.1. 스키마의 개념

스키마(Schema)는 사전적 의미로는 개요, 도식, 윤곽, 도해(圖解) 등으로 뜻을 풀이한다. 다른 의미로는 스키마는 모든 기억의 틀(frames)이라고 하며, 일반적 기억의 그것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의해 새롭게 형성되는 데이터이다.

즉, 인간의 기억 속에 축적된 지식구조인 스키마에 관한 이론이다. 스키마라는 용어는 1932년 영국의 심리학자 F.C. 바틀릿(Bartlett, F.C.)<sup>1)</sup>의 논문 『Remembering(기억)』에서 나온 말이다. 바틀릿은 “먼저 고양이 모양을 기억해 그림으로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그 고양이 그림을 계속 전달해 나간다.”는 상황을 설정해서 인간의 기억 속에서 고양이의 모양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그림 1> 아르코폴리스 스케치  
(Le Corbusier)

<그림 2> 통상성당 스케치  
(Le Corbusier)

1) Bartlett, F. C. 영국의 심리학자. 1932년 『Remembering』을 발표. 이 책에는 그가 유령들의 전쟁("The War of the Ghosts")이라는 오래된 인디언 전설을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시 "재구성"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억에서 나온 기록들을 보면 처음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와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 즉,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처음 들었던 이야기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끝나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이야기에 깨달음을 더해서 다시 이야기를 풀어내거나, 아니면 어떤 기억의 단서를 바탕으로 거기에 따라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옮겨진 이야기는 원래 있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창작물이 되고 만다는 데 문제가 있다. 메모리라는 것이 최초로 입력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존 지식이나 경험, 신념, 또는 다른 선입견에 의해 "재구성"해내는 것임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기존 지식이나 경험을 심리학적 용어로 스키마(schema)라고 하고, 바틀릿이 주장한 이 스키마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기존 스키마에 맞도록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관찰하고 사람들에 의해 기억은 어떻게 주관적으로 나타나는지 연구하였다.

스키마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림 1>, <그림 2>를 보면 르 꼬르뷔제(Le Corbusier)는 먼저 동방여행을 하면서 아르코폴리스를 스케치하게 된다. 이후에 작품인 룡상성당을 보면 같은 이미지인 것과 같이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행에서 느꼈던 아르코폴리스의 스키마에 따른 현상이 이후에 작품에 발전, 변형되어 작품에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스키마의 관한 학자들의 정의

	의 미	정 의
Kant	스키마는 선험적 도식	과거 경험의 능동적인 조직으로 정신적 이미지라고 정의
Neisser	실상의 모습	인지구조로 정의
Akin	프로토클 분석실험에서 건물 한 부분(예를 들어 기둥, 각실, 창문, 문 등)을 나타내는 정보의 집합	지식의 단위라고 정의
Langacker	사물이나 사상(事象)에 관한 과거의 경험에 입각한 지식을 더욱 추상화, 구조화 한 것	인간의 지식체계는 스키마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고 정의
Schulz	어떤 상황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	전형적인 태도 혹은 의도적인 극(pole)들의 의도적인 일관성-체계(coherence-system)로 정의

스키마는 <표 1>에서 제시된 것처럼 여러 의미로 정의가 되고 있다. 단어 상으로는 IT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이지만 건축적 개념과 다른 분야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스키마는 개념의 상위 지식으로 개념에 대한 사전지식이며, 그에 따라 인지하는 이미지는 그 주체가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스키마가 상호작용하여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스키마는 전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달라진다.

스키마는 어떤 일이나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나 보이지 않은 것을 추론하고 지각하는 것도 스키마의 하나의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키마에 따른 기억의 의미를 살펴보면 기억은 어떠한 한가지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신경과 경험 등 정신적, 신체적 모든 기관의 전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기억의 연결은 인간에게는 이미지로 저장된다. 이 이미지는 인간의 경험과 새로운 환경에 의해 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여러 요소와 혼합하여 재구성되어진다.

기억과 스키마를 언뜻 보기에는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표 2>와 같이 기억과 스키마의 차이를 보면 건축적 의미에서 스키마는 이미지와 연합하여 설계자의 개념적 발전과정에서 디자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모티프와 결과로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기억과 스키마의 차이

	차이점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차이점
기억	단순한 사물이나 외형적 형태의 실제적 기억만을 뜻하지 않으며, 적어도 기억은 이미지, 개념, 상징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스키마	기억의 이미지가 각각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각자 살아온 삶과 경험, 지식의 습득으로 인해서 예전의 기억 이미지가 혼합되어 새로운 이미지로 융화되어 또 다른 이미지로 재해석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2. 도식적 스키마와 구조적 스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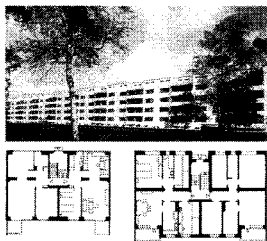
스키마라는 의미가 오랜 기간 일관되게 사용되어 온 것은 아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많은 부분 스키마를 적용해서 건축적, 디자인적 사고와 인식의 체계로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스키마는 정신적인 측면의 형태로 되어있어 겉으로 들어나는 형태는 개개인의 표현 방법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스키마의 표현 방법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지며,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키마의 사전적인 의미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성향으로 표현되는 도식적인 특성과 개개인의 서로 다른 기억과 경험에 따라 나타나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구별해서 이에 따른 의미를 알아본다.

### (1) 도식적 스키마

도식적인 스키마는 사전적인 의미와도 같이 체계적이고 데이터화된 스키마를 의미한다. 도시를 예를 들면 건축물



<그림 3> 베를린 대단위 지멘스슈타트 지드룽(Gross-Siedlung Siemensstadt 1929~1931)

개별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들 개별적인 것을 결합하고 재구성하여 도시 전체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이고 집합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도식적 스키마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도식적 사고 자체는 아이디어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며, 부분들을 맞추어 각각의 아이디어를 재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 특성을 유추<sup>2)</sup>하도록 도와준다.

### (2) 구조적 스키마

구조적 스키마는 지각, 기억, 사고, 경험 등 모두가 비물질적 요소로서 인간의 인지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사항이며, 추상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구조적 스키마는 디자이너의 사고방식, 즉, 철학적 부분에서부터 주관적인 생각, 경험 등, 개개인적인 성격의 의미가 강하며, 이로 인해 건축적, 디자인에 있어서는 기능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구조적 스키마의 개념은 대개 작품 속에 스며있으며, 전체적인 조화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 객관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림 4> Teatro del Mondo(Aldo Rossi, 1979)

구조적 스키마의 경우 대부분은 디자이너 고유의 특성으로 이해되어 이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분류, 분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고찰이 요구되며, 디자이너만의 개인적인 사고로써 어느 정도의 범주화가 가능<sup>3)</sup>하다.

## 3. 알도 로시의 건축 개념과 작품에 나타난 스키마

### 3.1. 신헌리주의 건축가 알도 로시

알도 로시는 이탈리아의 합리주의가 시작된 도시인 코모(Como)에서 성장하고 자랐으며, 그 후 밀라노 공과대학에서 계몽주의적 건축에 대해 연구하고 진보적인 사고와 형태적 명료성 그리고 시민을 위한 도시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 후 베니스 건축대학에서 까를로 아이모니노(C. Aymonino)의 조교로 활동하면서 유형학과 도시와 건축의 연관성에 대해 심층적 분석을 하면서 신헌리주의(Neo-rationalism)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sup>4)</sup>

알도 로시를 포함한 신헌리주의 건축가들은 전통적인 모더니즘에서 나타나는 디테일이나 기능과는 관계없이 유형학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전 건축의 유형학적 연구를 재평가하고 건축을 독립된 과학으로 파악하려 했으며,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건축을 형태로써 재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알도 로시는 다른 신헌리주의 건축가와 차별화 되는

2) 송석현, 건축디자인 개념의 설정과 스키마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5권, 제1호 통권243호, 2009.1, p.175

3) Ibid., p.175

4) 김종현, 이탈리아어권의 신헌리주의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3권, 제1호 통권99호, 1997.1, pp.82-83.

부분의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형태로써 재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기억과 경험, 자전적 생각을 포함하고 그에 따른 연속적, 상징적 표현 등 특징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알도 로시는 유형학적인 면에 집중하고 이와 함께 기억, 경험 등 자전적인 성향의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스키마에 의한 공간의 표현에 관한 연구에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알도 로시는 건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대학시절에서 연구하고 분석한 계몽주의적 이론에 관한 부분과 언어학과 구조주의에 관한 흥미에 의해 이론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두 번째로 도시 지리학, 경제학,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이론이다. 알도 로시는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방법론에 대해 결합하여 유추하려고 하였으며 다른 면으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론을 결합해서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내려하였다. 5)

알도 로시는 “도시를 건축에 의한 도시로 합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걸쳐 형성된 축조로서의 건축”이라고 정의 했다. 도시와 건축의 관계에 관해서 단순히 형성되어 커진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축조(築造)’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 건축은 도시의 시작과 끝에 같이 존재하고 또한 건축은 문명의 형성에 깊게 관여하고 형성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기억과 흔적에 대한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 3.2. 알도 로시 건축의 자전적 개념 (Autobiographical Concept)

알도 로시는 도시와 건축의 관계와 형성과정에서 형태로써 재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그 안에 나타나는 자전적인 기억과 경험에 따른 특징적 요소와 공간 구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로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건축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그의 저서나 드로잉을 보면 또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책으로 『도시의 건축(L'architettura Della Citta)』 6)을 살펴보면 역사적인 시대와 장소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인식에서 형식적으로 불변하는 요소로서 ‘유형’이라 말하고 있다. 7)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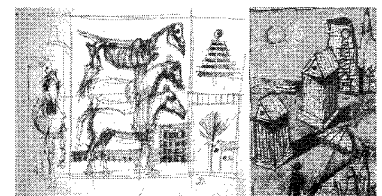
유형과 도시와 건축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책의 글을 보면 초록을 보는 것과 같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알도 로시가 서문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 “명백한 실수 외에는 수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전체적인 흐름 안에 또 다른 알도 로시의 개인적 성향과 표현 방법이 깊게 새겨져 있다.

개인적인 성향이 더욱 강한 또 다른 책인 『과학적 자서전(Autobiografia Scientifica)』 8)에서는 처음 언급한 것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해온 메모를 정리하면서 출간한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책의 내용은 부자연스러운 연결과 뒤죽박죽으로 전개되는 것과 같지만 그 안에서 드러나는 알도 로시의 다양한 생각의 전개와 복잡다단한 성격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알도 로시는 사고 전체에 개인의 기억과 경험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을 항상 드러내고 있으며, 이런 점을 파악하고 분석해 보면 개인적인 경험에서 드로잉이라는 이미지로 표현되었다가 다시 건물 형태로서 변형되고 재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전적 개념이 잘 드러난 과학적 자서전을 바탕으로 특성을 파악해보고 이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정지 상태

알도 로시는 자서전에서 항상 마지막이라고 여겼으며, “해마다 그 해 여름은 내겐 마지막 여름이라 여겨졌고, 전진이 없는 이러한 정지상태의 감각은 나의 프로젝트들을 상당 부분 설명해줄 수 있다. 9)”라고 말하며 그때 그 당시의 감각을 절대적인 것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지 상태를 절대적이고, 순수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정지 상태는 알도 로시의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의 기억과 경험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초기의 작품인 모데나 묘지를 계획 할 당시에 죽을 고비를 넘길 정



<그림 5> 알도 로시의 <그림 6> 엘바  
빼에 관한 드로잉 섬의 오투막과  
사람

도의 심한 교통사고로 인해 느꼈던 ‘죽음’에 대한 생각과 상처에 의해 빼와 골격의 구조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그것을 원초적이고 순수한 형태로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의 작품들을 보면 죽음의 대한 것에서 벗어나 행복에

5) 임종연·이홍, 공간 디자인에 있어 집합적 기억에 관한 알도 로시와 램쿨하스의 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 15권 6호 통권59호, 2006.12,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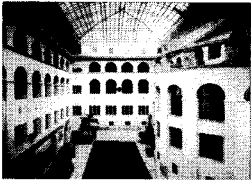
6) 알도 로시, 『도시의 건축(L'architettura Della Citta)』은 도시에 대한 해석과 건축의 현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실행과 일치하는 건축이론을 담고 있다. 인식의 세계와 실행의 세계를 아우르는 건축가의 논리적 진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7) 이윤옥·신재익·성인수, 알도 로시 건축에 나타나는 공간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 제19권 제2호, 1999.10, p.399

8) 건축가 알도 로시의 삶과 건축가로서의 인생을 담고 있는 『과학적 자서전』. 이 책은 논리적 이론의 구체적 결과로 나타나는 계획안의 배후에서 예측하지 못한 감수성이 자전적 기억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로시 건축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9) Aldo Rossi, Autobiografia Scientifica, 과학적 자서전, 광기표, 초판, 소호건축, 서울, 2006, p.7

관하여 표현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행복에 관한 기억을 보면 여름 휴가철의 해변을 떠올리며 나른하고 고요하며, 끝없는 평화와 자유를 그리고 있다.



<그림 7> 취리히 대학 풍경

“트리에스테(Trieste) 주청사” 프로젝트는 취리히 대학의 아트리움 사진<sup>10)</sup>을 보고 거기서 느껴졌던 행복의 기억과 경험에 의해 평화로웠던 공간을 마치 시간이 멈추고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의 공간인 이 사진의 장면을 보고 느꼈으며, 이후 프로젝트에 재현하게 된다.

(2)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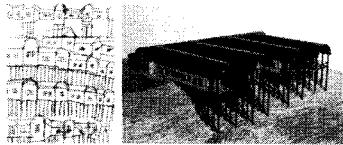
알도 로시의 연속성에 따른 표현방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신헌리주의 건축의 특징인 고전 건축의 전통적인 축에 의한 형태, 대칭적 형태 등에 대한 고증과 분석을 거쳐 변형되고 재해석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억과 경험에 의해 나타나는 반복적인 사물이나 연속적인 행위에 대한 기억을 건축에 표현하고 있다.



<그림 8> 엘바 섬의 오두막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엘바 섬의 오두막<sup>11)</sup>’과 ‘보르고 티치노 주택’을 들 수 있는데 엘바 섬의 오두막은 알도 로시의 많은 경험과 기억에 각인되어 있는 형태의 반복적 모습을 담아낸 드로잉이며, 이러한 형태는 건축에 박공지붕의 형태와 패턴 등으로 작품에 연속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또한 ‘보르고 티치노 주택<sup>12)</sup>’은 ‘바랄로 폼비아 도로상에서’라는 드로잉에서 시작된 형태로서 공중에 띄어진 건물의 형태로 추후에 연속적으로 작품에 등장하게 된다.



<그림 9> 보르고 티치노 주택

(3) 상징성

알도 로시는 모데나 공동묘지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성향이 크게 바뀌게 된다. 초기에는 죽음, 정지 상태 등의 성향으로 작품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한 이러한 성향으로 작품 활동을 한다.

그 후에 어느 정도 성장하여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면서부터 행복에 대한 의미를 찾고 그에 따른 상징적인 특징으로 건축의 형태에 나타나게 된다.



<그림 10> The Architecture-the Prologue

로시의 상징적인 표현을 보면 드로잉<sup>13)</sup>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방기구의 형태와 신화적 성인상의 오른손, 그리고 5시의 시계 등 내재된 기억과 감성적 성향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프로젝트에서도 형태적, 장식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징성은 연속성과 신화성 등과 겹치는 의미일 수 있지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암흑기와 행복기를 거치면서 경험하고 표현하는 의미에서 상징성이라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4) 신화성

알도 로시는 어렸을 적에 조형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늘 형태와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서 어릴 적 기독교적 조형물, 특히 산 카를로네 성인상과 사크로 몬테(Sacro Monte)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거대한 크기로 이루어져 사람이 그 내부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이러한 거대한 크기와 그 안에서 보여 지는 금속부품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의 높은 조망으로 인한 신화적 거대함에 깊은 영감을 받게 된다.



<그림 11> 산 카를로네 아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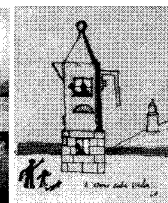
<그림 12> 사크로 몬테

또한 사크로 몬테(신성한 산)는 롬바르디아에서 매너리스트적 신앙심이 특징적으로 발전한 모습이다. 소예배당으로 산길에 따라 여러 개의 예배당이 배열되어 있다. 여기서 로시는 강한 조형적 영향을 받고 성경의 내용이 정지된 상들로서 표현되어 있는 것에 대해 신화적 감동을 받게 된다. 알도 로시는 이러한 신화적, 종교적 성향을 건축에 발전시켜 거대한 기둥과 빛에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5) 상호성



<그림 13> 등대가 있는 전경



<그림 14> 알도 로시의 드로잉

알도 로시는 시각적 상호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등대를 보면 건물 안에서 밖을 관찰하고 주시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밤에는 빛을 밝혀 멀리 있는 배의 길 안내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성을 알

10) Aldo Rossi, Autobiografia Scientifica, op.cit., p.20  
 11) Aldo Rossi, Drawing & Paintings, 세계건축가드로잉시리즈 2, 정지성, CA 현대건축, 건축도서출판공사, 서울, 1996, p.2  
 12) Ibid., p.126

13) Aldo Rossi, Drawing & Paintings, op.cit., p.189

도 로시는 중요시 생각하고 우선 드로잉에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주 등장하게 된다. 즉 실내에서 창을 통해 바깥을 관찰하고 있는 인물 또는 건물 안을 들여다보는 바깥의 인물을 묘사하는 드로잉을 그리고 있으며 작품에서는 파냐노 올로나 초등학교에서처럼 시선의 상호성이 작용하는 구성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알도 로시는 프로젝트에서 기둥이나 굴뚝, 탑 같은 건물을 소통적 시선의 관점으로 보고 사물의 대상과 주체가 교감하는 작용을 하게 표현하고 있다.

### 3.3. 알도 로시 건축의 스키마와 공간화

알도 로시 건축의 형태를 살펴보면 『도시의 건축』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논리적이고 도식적인 과학적 개념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모습인 자전적 개념이 스며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알도 로시의 작품을 보면 기억의 형상들이 이미지와 조각들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기억의 조각들은 로시의 과학적인 개념의 성향으로 자연스럽게 재배열되어 그것들이 다시 용도에 맞게 변형되거나 발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도 로시 건축의 스키마에 의한 공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앞서 말한 자전적 개념에 의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과 행복의 감정에 의해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절대적이고 순수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며, 공간의 연속성, 상징성, 신화성, 상호성을 표현하고 있다. 순수 기하학형태의 공간은 건물에서 나타나는 중정의 형태와 회랑의 형태 그리고 건물의 내부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공간의 연속성은 평면과 입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회랑의 반복된 기둥과 모데나 묘지에서의 평면에서 보여 지는 가운데 부분의 납골당의 형태와 창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공간의 상징성은 환경과 감정에 대해 특징적인 사물이나 형태, 요소들을 배치시켜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신화성은 건물의 외부에는 거대한 기둥을 두거나 내부에서는 높고 넓은 홀을 만들어 논스케일(Non-Scale)로 표현하고 있으며 상호성은 건물의 안과 밖을 소통하게 함으로써 시각적 교감을 느낄 수 있다.

## 4. 알도 로시의 스키마를 바탕으로 한 건축 공간 사례분석

### 4.1. 사례선정 및 분석

사례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 알도 로시의 자전적 부분의 특징이 잘 반영된 공간을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어느 특정한 공간이 아닌 도시 내에서 존재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다양한 공간을 선정의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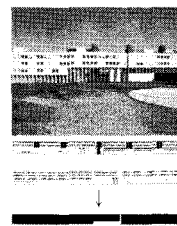
기준을 바탕으로 알도 로시의 작품 중 4개의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작품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3> 사례선정 작품목록

	작품명	작품 위치, 파트너	작품년도
1	갈라라테제 집합주택	Gallaratese 2 Milan, Italy.	1969~1973
2	산 카탈도 공동묘지	Cemetery of San Cataldo Modena, Italy, With G. Braghieri	1971~1984
3	파냐노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Fagnano Olona, Italy.	1972~1976
4	트리에스테 주청사	Regional Administrative Center Competition Design Trieste, Italy, With G. Braghieri, M. Bosshard	1974

사례분석은 먼저 알도 로시의 작품의 개괄적 설명과 공간 특성, 구성형식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공간에 나타나는 스키마에 대한 연계성을 파악하여 알도 로시의 건축에 나타난 자전적 특성을 알아 볼 것이다.

#### (1) 갈라라테제 집합주택(Gallaratese 2, 1969~73)



<그림 15> 이미지와 구성형식

아이모니노와 알도로시가 협력하여 건설한 밀라노의 몬테아미타(Monte Amita)주택단지 계획안 중 하나이며, 지상 층에 위치한 182m, 폭12m의 좁은 회랑과 상부에 주거영역이 위치하고 있다. 수평으로 반복되어지는 기둥들은 회랑과 주변영역이 시각적 개방성을 갖게 하고 회랑 내에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둥들의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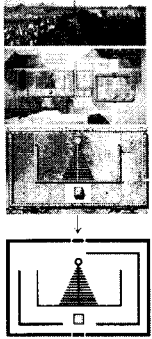
알도로시의 스키마를 바탕으로 한 공간 특성

정치상태		-로시는 우연히 어떤 장면의 사진을 본 후 나중에 방문한 수도원의 형태에서 사진의 장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때의 시각적, 감정적 느낌을 그대로 재현한 디자인을 하였다. 이러한 재현에서 그 당시의 느낌을 담은 정치 상태의 표현을 볼 수 있다.
연속성		-회랑에 있는 연속된 기둥은 내, 외부의 시각적 개방성과 회랑 내의 수평적 연속성을 나타낸다. -건물의 내, 외부에서 회랑에 대한 인지성을 가지게 된다.
상징성		-연속된 회랑의 기둥에서 중간의 4개의 거대한 기둥을 두어서 강한 모뉴먼트를 느끼게 한다. -외부에서는 2/3지점에서 완전히 두 개의 매스로 나누어지며, 이 두 개의 매스당어리는 내부의 원기둥처럼 주변 영역에 대해 모뉴먼트를 만들어낸다.
상호성		-회랑의 기둥으로 인해 내, 외부의 분리와 연계시켜주는 중간 영역의 역할을 한다.

속에 4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인해서 내, 외부에서 모뉴먼트를 만들어 낸다.

갈라라테제 집합주택은 알도 로시의 초기의 작품으로 가로로 길게 계획되어 있고 지층에는 연속된 기둥과 사이에는 거대한 기둥을 연속성, 신화성, 상호성 등이 잘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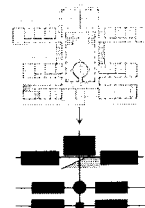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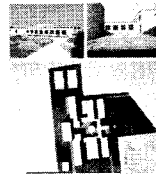
(2) 산 카탈도 공동묘지(Cemetery of San Cataldo, 1971-84)



<그림 16> 이미지와 구성형식

1971년 설계공모로 당선되어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유대인 묘지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기능보다는 상징성을 강조하고 중정 내부 묘지의 3면을 둘러싸고 있는 납골당과 수직, 수평으로 변화하는 형태로 계획되어 있다.

즉 경사지붕의 유폴안치소인 외부를 둘러싸인 벽, 창문이 뚫린 정육면체 의사당, 일반묘소인 배치 축 상의 원추, 그리고 정육면체와 원추 사이의 회랑과 원추를 향해 삼각형 평면으로 구성된 납골당으로 구성된다.



<그림 17> 이미지와 구성형식

는 축에 의해 배열하고 중심공간은 건물 내부에 위치하면서 외부공간이며, 강한 시각적 중심을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중정은 건물을 이루는 매스에 둘러싸여 외부와는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고 폐쇄적인 공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중정 내부에 위치한 원통형의 도서관은 건물 외부에 위치한 굴뚝, 파고라와 건물 전체의 축을 이루면서 폐쇄적인 중정을 주변영역과 연계시키고 있다.

폐쇄적인 평면을 지니고 있지만 레벨의 차이와 가운데 중정에 원통형 건물을 배치시켜 폐쇄적인 분위기보다 상징성을 강조하는 공간이 되었으며, 레벨 차와 중정으로 이어지는 공간에 놀이, 수업, 행사 등 여러 요소를 조화롭게 배치시켜 초등학교와 안 어울릴 수 있는 평면을 효과적으로 로시의 특징과 함께 잘 표현된 작품이다.

알도로시의 스키마를 바탕으로 한 공간 특성		
정지상태		-설계단계에서 사고로 인한 굴격과 그 변형에 관심. -죽음에 대한 의미로 정지 상태, 멈춤의 의미로 표현.
연속성		-모데나의 가족묘에서 보면 박공묘의 지붕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구에서 보여 지는 연속적인 회랑기둥의 형태와 전체적인 창의 형태에서도 나타난다.
상징성		-진입 부분의 표현되어 있는 고전주의 양식의 건물 형태를 모이며, 이로 인해 옛 것에 대한 상징성이 부여 된다.
신화성		-중앙의 납골당의 사이에서 나타나 원기둥의 거대한 형태와 중심부에 위치한 평면에서 신화적인 초월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상호성		-진입해서 보여 지는 정육면체의 붉은색건물은 처음 들어오면서 마주치게 되는 첫 번째 건물이며 이곳에서 사망으로 뚫려있어 살아있는 사람끼리의 소통과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과의 소통으로 인해 상호성을 느끼게 한다.

산 카탈도 공동묘지는 계획 당시부터 로시 자신의 심리적 상태와 공동묘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서 상징적인 평면적, 입면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 또한 로시의 다양한 특징이 곳곳에 잘 표현되어 있다.

(3) 파나노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Fagnano Olona, 197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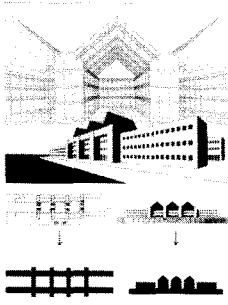
계획 당시 작은 도시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건물 전체

알도로시의 스키마를 바탕으로 한 공간 특성		
정지상태		-건물의 배치에서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어 막힌 공간, 정지, 멈춤의 의미로 표현. -건물 가운데에 시계는 정지 상태의 의미를 부여한다.
연속성		-전체적인 평면에서 나타나듯이 축에 의한 건물의 배치와 중정을 배치시켜 고전주의에서 시작된 형식을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물에서 작은 창의 반복적인 형태와 건물의 격자무늬의 창의 연속된 디자인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상징성		-두 개의 레벨과 매스에 의해서 가운데 중정 내부의 원통형의 도서관이 강한 모뉴먼트를 느낄 수 있다. -건물의 대칭적 구조로 고전주의 형태 건물의 상징성을 부여했다.
신화성		-건물 입구에 파고라와 일직선상에 위치한 굴뚝은 거대한 원기둥의 형태로서 스케일상의 신화적 초월성을 준다.
상호성		-폐쇄적인 공간 가운데 원통형 도서관은 외부에 있는 굴뚝과 건물 전체의 축을 이루면서 주변영역과 연계성을 이루며 가운데의 원통형 도서관은 중심의 집중성으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서의 상호성을 갖는다.

(4) 트리에스테 주청사(Regional Administrative Center, 1974)

지역행정센터로 트리에스테의 열차기지 근처에 있는 오래된 오스트리아 물류창고의 자리에 계획 되어졌다. 도시가 18세기에 확장할 때 기하학적 형태로 발전되고 신고전주의적 건물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건물 전체는 가운데 3동의 법원과 평행한 2개의 긴 오피스 동으로 되어 있으며, 1층에 서비스공간을 두고 축



<그림 18> 이미지와 구성형식

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초석부분을 없애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트리에스테 주청사는 취리히 대학에서 느꼈던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계획되었으며 느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발전된 기하학적 형태의 특성과 고전주의양식 건물의 형태를 알도 로시가 자신의 건축적 특성과 융합하여 박공지붕, 반복된 회랑, 창 등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알도 로시의 스키마를 바탕으로 한 공간 특성

정지상태		-취리히 대학의 사건의 풍경을 보고 그 안의 장면에서 행복했던 공간을 재현함으로써 정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연속성		-창에서 나타나는 반복된 형태와 수직 수평의 매스의 구조로 표현되었다. -고전주의 형태, 기억의 되새김에서 반복적, 연속적으로 표현되어 진다.
상징성		-옛날 기억에서 오는 형태의 재구축으로 인해 상징적 공간을 표현했다.
신화성		-거대한 3개의 박공지붕의 건물과 내부에서 느껴지는 넓은 공간에서 초월적 표현이 되어 진다. -1층 측면에서 접근하는 입구는 Non-scale의 표현으로 신화적 초월성을 표현하였다.
상호성		-오피스 등의 폐쇄적인 형태와 그안에 있는 3개의 법원 동은 내부에서 나타나는 중심의 형태를 띄며, 법원 동의 내부에서는 복도를 두고 회랑과 창을 두어 내, 외부의 상호성을 띄게 했다.

## 5. 결론

지금까지 알도 로시의 작품을 중심으로 스키마에 바탕을 둔 공간의 특성을 살펴본 후 작품에 나타난 표현방법과 그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크게 5가지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지상태의 특징적인 공간의 형태를 보면 옛 건물에서 느껴졌던 느낌과 감정의 표현으로 당시 건물의 형태인 일직선으로 된 건물을 재현하거나 강하게 인식된 이미지를 평면 형태로 재현하는 등 알도 로시가 의미하고 있는 정지상태인 순수하고 절대적인 공간의 느낌과 그 순간의 감정을 나타내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속성의 표현은 신헌리주의 건축의 특징인 고전건축의 형태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재구성하여 사용하는 연속적인 표현과 로시의 기억에 각인되어있는 형태나 습관이

공간에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회랑의 반복된 기둥의 형태나, 박공지붕의 형태, 또 이런 형태를 혼합하여 파고라의 형태 등을 변형, 발전시켜 프로젝트에 연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징성은 알도 로시의 죽음과 행복에 대한 내면의 성향으로 장식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옛것에 대한 재발견으로써 고전주의양식 건축물 형태의 표현과 원형시계의 사용, 대칭적인 건물의 형태, 신전 형태의 디자인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징성은 다른 특성과 같이 독립적인 성격의 특징이 아닌 알도 로시의 암흑기와 행복기, 신헌리주의 건축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난 여러 영향에 의해 다른 특징들의 표현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상징적이라는 또 다른 의미로서 표현인 것을 알 수 있다.

신화성은 신화적, 종교적인 영향을 받고 나타나는 특징으로 드로잉에서 성인상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공간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거대한 기둥을 사용하거나 공간에 축을 이용해 중심이 되는 곳에 논스케일(Non-Scale)의 홀이나 건물을 배치해서 신화적인 거대함과 성스러운 표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성은 시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알도 로시는 개인적 경험에서 오는 극장과 등대, 탑 등의 시각적 구축물에 대한 애호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등대에서 나타나는 특성인 안에서 밖을 관찰하는 시선과 밖에서 등대를 향해 보는 시선에 대한 상호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이러한 현상은 극장 등 여러 공공장소 및 작품에서 시각장치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알도 로시의 스키마 공간화 과정

정지상태	공간의 분위기와 순간의 감정 상태를 표현.
연속성	고전건축의 재현과 반복적 행위에 따른 표현.
상징성	특정적인 기억과 심리상태에 대해 장식적으로 표현.
신화성	종교적, 신화적 특징을 스케일의 왜곡으로 표현.
상호성	주체와 대상과의 소통과 교감을 위해 창과 중심적 건물로 표현.

이렇듯 알도 로시의 건축은 자전적인 기억과 경험에서 오는 감성적인 성향으로 공간에 잘 표현되어 있으며, 도시 안에서 혼자 동떨어져 보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일부분에 녹아드는 디자인의 이론적 배경 속에서 알도 로시의 건축적 개념이 잘 드러나 있다.

본고에서 다룬 알도 로시의 스키마를 바탕으로 한 기억 공간에 관한 연구에서 알도 로시는 도시에 대해 자전적인 성향에서 나타나는 요소를 정리하고 재구성하여 자신의 작품에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알도 로시의 도시에 대한 연구와 자신만의 특징을 살려 디자인하는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도시와 융화되고 스키마에 의한 공간디자인이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Aldo Rossi, *Autobiografia Scientifica*, 과학적 자서전, 광기표, 초판, 소호건축, 서울, 2006
2. Aldo Rossi, *Buildings and Projects*, Scully, Vincent Joseph, Rizzoli, New York, 1985
3. Aldo Rossi, *Drawing & Paintings*, 세계건축가드로잉시리즈 2, 정지성, CA 현대건축, 건축도서출판공사, 서울, 1996
4. Aldo Rossi, *L'architettura Della Citta*, 도시의 건축, 오경근, 동녘, 서울, 2003
5. 르 꼬르뷔제 : 1996 - 1997 = Le Corbusier, 건축시대 편집부, 건축시대, 서울, 1999
6. 광기표, 알도 로시 건축에 나타나는 자전적 기억의 표현 양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2권 제9호 통권 215호, 2006.9
7. 김종현, 이탈리아어권의 신허리주의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3권 제1호 통권99호, 1997
8. 송석현, 건축디자인 개념의 설정과 스키마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5권 제1호 통권243호, 2009
9. 이윤옥·신재익·성인수, 알도 로시 건축에 나타나는 공간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 제19권 제2호, 1999
10. 임종엽·이홍, 공간 디자인에 있어 집합적 기억에 관한 알도 로시와 램쿨하스의 비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 15권 6호 통권59호, 2006

[논문접수 : 2009. 08. 30]

[1차 심사 : 2009. 09. 21]

[게재확정 : 2009. 10. 09]